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 學位論文

일본어동사의 재귀성에 관한 고찰

-재귀구문과 자동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09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專攻

李 尙 原

文學碩士 學位論文

일본어동사의 재귀성에 관한 고찰

-재귀구문과 자동사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指導敎授 孫 東 周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專攻

李 尙 原

李尙原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2月

主審　　張 相 彦　　(인)

委員　　崔 建 植　　(인)

委員　　孫 東 周　　(인)

목차

*Abstract ····· i

Ⅰ. 들어가기 ····· 1

1.1 연구목적 ····· 1

1.1.1 선행연구 ····· 1

1.1.2 연구방법 ····· 3

Ⅱ. 재귀성의 정의에 대하여 ····· 6

2.1 선행연구 ····· 6

2.2 재귀성의 정의 ····· 8

Ⅲ. 재귀구문의 분류 ····· 9

3.1 재귀동사문과 타동사재귀문 ····· 9

3.1.1 재귀동사문의 의미적 분류 ····· 10

3.1.1.1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11

3.1.1.2 <신체의 손질>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11

3.1.1.3 <일시적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12

3.1.1.4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12

3.1.1.5 <이탈>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13

3.1.2 재귀동사문의 단계성 ····· 14

3.1.3 재귀동사의 분류 ····· 15

3.2 타동사재귀문에 대하여 ····· 16

3.2.1 타동사재귀문의 특징과 성립형태 ····· 16

3.2.2 타동사재귀문의 의미적 분류 ····· 17
3.2.2.1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17
3.2.2.2 <신체의 손질>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18
3.2.2.3 <동작행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19
3.2.2.4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20
3.2.2.5 <이탈>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20
3.2.2.6 <감정의 변화>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21
3.2.3 타동사재귀문의 단계성 ····· 21

Ⅳ. 재귀구문과 상(相) ····· 23
4.1 선행연구 ····· 23
4.2 재귀구문의 상(相)적 의미특징 ····· 24
4.2.1 재귀동사문의 상(相)적 의미특징 ····· 25
4.2.2 타동사재귀문의 상(相)적 의미특징 ····· 26

Ⅴ. 재귀구문과 태(態) ····· 28
5.1 재귀구문과 수동태 ····· 28
5.1.1 선행연구 ····· 28
5.1.2 문제제기 ····· 30
5.1.2.1 동작주 일치와 명기의 필요성 ····· 31
5.1.2.2 불특정 다수가 주어인 경우 ····· 34
5.1.3 재귀구문의 간접수동문 성립에 대하여 ····· 35
5.2 재귀구문과 사역태 ····· 37
5.2.1 선행연구 ····· 37
5.2.2 문제제기 ····· 39

5.2.3 사역-타동성타동사에 대하여 ····· 39
5.2.4 자동사문의 사역태 ····· 41
5.2.5 타동사재귀문의 사역태 ····· 43
5.2.6 재귀동사문의 사역태 ····· 44
5.2.6.1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가 <타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47
5.2.6.2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가 <사역>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 48
5.2.6.3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재귀성>을 가지는 경우 ····· 48
5.2.7 재귀동사문의 태(態)적 의미특징 ····· 49

Ⅵ. 나오기 ····· 51

참고문헌 ····· 53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 Study of Reflexivity in Japanese Verb

- Comparison and Analysis which has the Sentence of Reflexive -

Sang Won Le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Ju Son

Abstract

This paper categorized Sentence of Reflexive by more expanded meaning than the existing definition. Sentence of Reflexive has a characteristic meaning causing state change of an agent. The state change of the agent is shown in visible change or invisible change. Based on the state change of the agent, Reflexive verb was categorized in terms of their meaning. And it was discovered motion activity and separation meaning of a transitive-verb Sentence of Reflexive, which is in subcategory of Sentence of Reflexive, takes a form of a transitive verb in the syntax but it has the same meaning as an intransitive verb which is focused on action of an agent. This characteristics suggested a step character that Sentence of Reflexive changes to motion activity in a viewpoint affecting body of an agent and it can be proved that Reflexive verb approaches from a transitive verb closer to an intransitive verb.

Also, apart from the conventional study that Sentence of Reflexive has both meanings, that is, continuation of motion, continuation of result on change, when it is added to テイル(Teiru) which is a form of a アスペクト(Aspect) of the Reflexive sentence, it was categorized and analyzed by object non-change verb」and「 object change verb」, 「 moment verb」, based on the verb categories of Kudo (1982). With this, it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verb groups used in the Sentence of Reflexive. Regarding characteristic meaning of Sentence of Reflexive and ヴォイス(Voice), they were divided into the passive voice and causative voice, and then compared, analyzed to an intransitive-verb sentence. In relation with a passive voice, for an intransitive-verb sentence is not compatible with direct passive, but with indirect passive sentence, the same example as Sentence of Reflexive was suggested. It was discovered that it has a common characteristics that an intransitive verb is compatible with indirect passive sentence, suggesting a groundwork supporting it is in line with an intransitive-verb sentence in the meaning. In the Sentence of Reflexive and causative voice, in case of a transitive-verb Sentence of Reflexive, it has the same meaning of an intransitive verb. Also, Reflexive verb is divided to 「reflexive verb」and 「non-reflexive verb」,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causative-transitive verb and the characteristic meaning was analyzed. The existence of causative-transitive verb supports that it has the similar connection as in the form of intransitive verb and it is close to an intransitive verb. Therefor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Sentence of Reflexive, Reflexive verb

exists in the form of independent category on the same line with an intransitive verb and a transitive verb.

Ⅰ. 들어가기

1.1 연구목적

1.1.1 선행연구

일본어 동사는 용법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격 명사구에 따른 자동사, 타동사로의 분류가 있다. 자동사는 스스로의 동작과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이며, 타동사는 다른 대상에 영향을 주는 동사로서 그 대상은 「を」격을 취한다.[1] 그러나 일부 타동사 중에서는 동작주의 행위가 대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동작주 스스로에게 영향을 입혀, 상태를 변화시키는 <재귀성>이라는 의미특징을 가지는 타동사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太郎は次郎を殴った。(仁田:1982) → (타동사문)
(2) 太郎は紺の背広を着ていた。(仁田:1982) → (재귀동사문)

(1)과 같이 동작주(太郎)의 동작이 대상(次郎)에게 영향을 주어 대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문을 타동사문이라고 하고, (2)와 같이 타동사의 형식을 취하나 동작주(太郎)의 행위가 오히려 동작주(太郎) 스스로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재귀성>의 의미특징을 가지는 문을 「재귀동사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사의 <재귀성>에 대하여 仁田(1982)는 「再帰とは、動作主から出た働きかけが結局は動作主自身に戻って来ることによって、動作が完結すると

[1] 孫 東周(2005)『日本語の動詞とヴォイス』제이앤씨 참조.

いった現象をいう」[2]라고 정의한다.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에 대한 연구는 仁田(1982)이외에도 天野(1987)등이 있으며, 工藤(1982)는 상(相)과의 연관성, 高橋(1985), 村木(1989)는 태(態)와의 관계 속에서 <재귀성>에 대하여 언급해 왔다. 또한, 다음과 같이 자동사의 <재귀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도 있다.

연구자	자동사의 <재귀성>
荒井文雄(1988) 浅山佳郎(1991)	動作(行為)だけではなく、「風船が空に上がる」のような、物自体の変化についても、再帰的な作用がある。[3]
ウェスリー・M・ヤコブセン(1989)	「走る」「泳ぐ」など、対応する他動詞形を持たない動詞も同様であり、「意図的な行為を表す自動詞すべてにおいて、動作主が行為をなすと同時に、その結果ある変化(例えば、空間が変わる)を被るという再帰的意味が働いている。」
高橋太郎(1985)	再帰構文は「述語が補語といっしょになって、動作主体の動作をあらわしている。いわば、両方がくみあわさって自動詞相当になっている。」と述べ、＜手をあげる＝挙手する　あたまをたれる＝うなだれる　ぼうしをぬぐ＝脱帽する＞というような、自動詞との対応が多いことがその裏付けであるとする。

이와 같이 자동사의 <재귀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선행연구가 있는 반면, 仁田(1982)는 「働きかけを有していない自動詞は、そもそも再帰といった現象にかかわってこない」라고 지적하며 자동사의 <재귀성>에 관하여 인정하지

[2] 仁田(1982)는 자동사의 경우, 타인이나 사물로 영향을 주는 성질이 없으므로 <재귀>라는 현상과 관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仁田義雄(1982) 「再帰動詞、再帰用法―Lexico-Syntaxの姿勢から―」『日本語教育』47 참조)
[3] 須賀一好・早津恵美子(1995) 『動詞の自他』에서 재인용.

않는 입장을 취한다.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재귀구문은 타동사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仁田(1982)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재귀구문」은 「を」격 명사구를 가지는 타동사문에 한정하여 분석을 해 나갈 것이다.

1.1.2 연구방법

문의 표면적 특징 즉 형식적 특징으로는 동작주와 「を」격 명사구의 항을 취하여 타동사문의 형식을 갖추면서도 타동사문 고유의 문법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a 太郎は次郎を殴った。((=1)) (타동사문)
b 太郎は次郎に殴られた。(직접수동문)
(4) a 太郎は紺の背広を着ていた。((=2)) (재귀동사문)
b *紺の背広は次郎に着られている。(직접수동문)

三上(1953)은 동사를 수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형」이 가능한 동사를 능동사(能動詞), 「수동형」이 불가능한 동사를 소동사(所動詞)로 구분하였다. 능동사(能動詞)중에서 직접수동이 가능한 동사를 타동사(他動詞), 직접수동이 불가능한 능동사(能動詞)를 자동사(自動詞)라고 하였다. 따라서 三上(1953)의 설명대로 (4a)의 경우는 「を」격 명사구를 취하지만 (4b)와 같이 직접수동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로 분류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奥津敬一郎(1967)는 「「を」格にも「目的語」を示すものと、「移動格」を示すものとに区別して、「移動格」を表すヲ格は対応する自・他動詞形のどちらにも伴われ得ることや機能的にも移動の場所を示すだけであることから他動詞とは無関係であり、目的語を伴う動詞だけを他動詞である」[4]라고 지적하며, 목적어를

[4] 孫東周(2003)『日本語の動詞とヴォイス』에서 재인용.

수반하는 동사를 타동사로 분류하는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4a)의「背広」와 같이 이동격을 나타내는「を」격이 아닌, 목적어를 수반한다는 관점에서 본고는 (4a)와 같은「재귀동사」를 타동사의 관점에서 분석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타동사문에서 <재귀성>을 가지는 구문을「재귀구문」으로 분류하고, 재귀구문을「재귀동사문」과「타동사재귀문」으로 분류한다. 이러한「재귀구문」속의 타동사가 타인과 사물에 영향을 주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동작주에게 작용[5]하여 동작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성질을 가지는 동사를「재귀동사」로 분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타동사의 성질을 가지지만, 신체 일부분을 목적격으로 취함으로써, 스스로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재귀성>의 의미특징을 가지는 구문을「타동사재귀문」으로 분류한다. 따라서,「재귀동사」는 타인이나 사물에 작용하는 타동사와는 달리 동작주 스스로에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타동사와 다른 성질을 가지지만 목적어를 수반한다는 점과, 동작주의 작용으로 인하여 대상인 자신의 상태변화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타동사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재귀구문」을 타동사문의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에는 프로트타이프론적 사상에 입각하여「재귀구문」을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재귀구문」속에서 나타나는 동사류의 특징에 따라「재귀구문」이 가지는 의미적 특징도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재귀구문」의 단계성을 기반으로 하여 상(相)적 의미특징을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타동사와 어떠한 상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태(態)와 관련하여서는「재귀구문」과 자동사문과의 의미특징에 있어서 공통점을 분석함으로써,「재귀동사」가 자동사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재귀구문」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재귀성>의 정의

[5] 본고에서는「働きかけ」의 의미를「작용」이라고 칭한다.

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은 단지 동작주의 <탈착>[6]의 행위로 인하여 동작주의 <가시적 상태변화>에만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동작주의 생리적 변화와 감정의 변화와 같은 <비가시적 상태변화>까지 확장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의미의 「재귀구문」은 <재귀성>의 단계성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단계성은 「재귀구문」이 상(相)과 태(態)의 형태로 교체할 경우에 나타나는 의미특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방향을 제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동사문과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재귀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의 선상에서 독립적 카테고리로서의 위치확립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6] <착의><탈의>의 행위를 본고에서는 <탈착>이라고 칭한다.

Ⅱ. 재귀성의 정의에 대하여

2.1 선행연구

일본어 동사의 <재귀>에 대한 정의와 <재귀>와 관련된 정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용어	<재귀>에 대한 정의
高橋太郎 (1975)	再帰構文	「実際に自分の所属物にはたらきかける」
鈴木康之 (1982)	再帰動詞	「一般に、自身に対してのはたらきかけを意味する動詞」
仁田義雄 (1982)	再帰	「動作主から出た働きかけが結局は動作主自身に戻って来ることによって、動作が完結するといった現象」
益岡隆志・田窪行則 (1989)	再帰表現	「他動詞の表現の中には、主体から出た働きかけが主体に戻って来るという事態を表すものがある」
村木新太郎 (1989)	再帰動詞	재귀동사에 대하여 「動詞の意味する運動・作用がおよぶのは動作主自身である」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동작주가 행한 동작이 동작주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관점과 「자신 또는 자신의 소유물에게 작용을 한다」는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5) スタッフは白いシャツに黒いずぼんの制服を着る。（東・11）
(6) シャワーをあびたあとのような匂いのする大男。（冷・14）

(7) 腰にバスタオルをまいただけの恰好でパソコンをいじっているマーブの背中に私は言った。(冷・33)

(8) 吉村は首を振った。(待・98)

(9) 鈴ちゃんは、疑われたもんだから腹を立てて、そんなこと言うんなら、さっさと行って堕して来るわよ、って言ったんだって。(夫・180)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5)는 옷을 입는 행위로 인하여 동작주가 행한 동작이 스스로에게 귀착되는 경우, (6)은 동작주의 신체에 작용하는 경우, (7)은 자신의 소유물(신체 일부분)에 작용하는 경우의 예문이다. 그러나, (8)의 경우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작용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동작주의 <동작행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9)의 경우는 의미적 측면으로 해석할 경우, 동작주의 감정변화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외에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에 대한 지적으로는 동작(행위)뿐만이 아닌 사물 자체의 변화에도 <재귀성>이 있으며, 자동사에서 나타나는 동작주의 행위에도 <재귀적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도 있다.[7] 그러나, 자동사문의 경우에도 동작주의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있다는 관점으로는 (8)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으나, 구문상으로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고에서 정의하는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荒井文雄(1988), 浅山佳郎(1991)는 동작(행위)뿐만이 아닌 「風船が空に上がる」와 같은 사물 자체의 변화에 있어서도 <재귀적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ウェスリー・M・ヤコブセン(1989)은 「泳ぐ」「走る」류의 무대자동사와 의도적 행위를 나타내는 모든 자동사는 동작주의 행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결과가 있는 변화를 나타낸다고 지적하며 <재귀적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須賀一好・早津恵美子(1995)『動詞の自他』참조)

2.2 재귀성의 정의

본고에서 나타나는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은 단순히 동작주의 신체변화를 나타내는 관점만이 아닌 동작주가 행한 동작이 다시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운동형태를 취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8)과 같은 경우는, 의미적 측면에서는 자동사와 같이 동작주의 동작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구문적 측면에서는 <재귀성>의 운동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재귀성>의 운동형태로 인하여, 동작주가 가시적인 상태변화를 입는다는 점에만 한정하지 않고, 구문상의 의미적 해석을 통하여 동작주의 <감정의 변화>와 <생리적 변화>와 같은 비가시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점에도 초점을 맞추어,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에 대하여 보다 확장된 의미의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기로 한다.

-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이란 동작주의 의지적인 행위가 타인이나 사물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스스로에게 귀착하는 운동형태를 취하며, 이러한 운동을 통한 작용은 동작주의 가시적인 신체의 상태변화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감정적 변화와 생리적 변화까지 초래하는 성질을 말한다.

Ⅲ. 재귀구문의 분류

3.1 재귀동사문과 타동사재귀문

仁田(1982)는 타동사 중에서 타인과 사물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항상 동작주 스스로에게만 작용하는 〈재귀성〉의 의미특징만을 가지는 동사를「재귀동사」로 칭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동사의 역할을 하지만, 동작주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작주의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を」격 명사구나 동작주의 신체 일부분으로 향하는「に」격 명사구에 의해서 문이 형성되어 구문상으로 <재귀성>의 의미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을「재귀용법」이라고 칭한다.

(10) a 毎朝彼はシャワーを浴びる。(天野:1987) → (재귀동사문)
b *毎朝彼は**次郎に**シャワーを浴びる。
(11) a 太郎は手袋を自分の手にはめた。(天野:1987) → (타동사재귀문)
b 太郎は手袋を次郎の手にはめた。

(10a)의 경우는「浴びる」라는 동사자체의 성질이 <재귀성>의 의미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사용된 문이며, (11a)은「はめる」라는 타동사가 현재 동작주의 소유물인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명사「自分の手」와 결합하여 <재귀성>의 의미특징을 가지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仁田(1982)의 분류방식을 도입하여 전자를「재귀동사문」, 후자를「타동사재귀문」으로 칭하기로 한다. 또한, (10a)의「재귀동사문」은 (10b)과 같이「次郎」라는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는 사용 될 수가 없으며, (11a)의「타동

사재귀문」은 (11)b와 같이 「次郎の手」라는 타인의 신체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재귀동사문」과 「타동사재귀문」을 분류하는 테스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3.1.1 재귀동사문의 의미적 분류

「재귀동사」는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着る」「履く」「被る」「脱ぐ」류의 동사와 「浴びる」와 같은 동작주의 신체에 물리적 영향을 주는 동사로, 「재귀동사」만이 가지는 특징 이외에도, 아스펙트와 사역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 그러나, 「재귀동사」의 분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工藤(1997)[9]의 아스펙트의 관점에서 「재귀동사」를 분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귀동사」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재귀동사」의 분류를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하여, 본고에서는 의미적 관점에서 「재귀동사」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재귀동사」는 기본적으로 「を」격을 취하며, 타인과 사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타동사로 한정한다. 이러한 동사류에 의해 사용된 구문의 의미적 분류는 「재귀동사문」속에서 동작주의 상태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운동형태를 통하여 어떠한 변화를 입었는가에 대하여 <단계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성>은 <재귀성>의 운동형태에 의해 동작주의 상태변화에서 스스로의 동작행위로 나아가는 단계로

[8] 仁田(1982), 天野(1987)는 재귀구문의 특징과 상(相), 태(態)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타동사문과의 차이점을 지적하였고, 工藤(1982)는 재귀동사와 상(相)적 의미특징, 高橋(1985) 村木(1986)는 태(態)와 관련하여 재귀구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9] 工藤(1995)는 재귀동사를 주체변화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류「かぶる、きがえる、きる、ぬぐ、はく、はおる、はめる、まとう」와 주체동작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류「おぶう、かかえる、かつぐ、くわえる、だく、つかむ、にぎる、もつ」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工藤真由美(1995)『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クスト』ひつじ書房 참조)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귀동사」는 타동사에 근접하고 있는 「재귀동사」에서 자동사에 근접하고 있는「재귀동사」로 단계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1.1.1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12) 背広を着た男が立っていた。(待・38)
(13) 麻生は帽子をかぶってでかけた。(夫・16)
(14) 手編みのカーディガンに、ほっそりと、ツィードのタイトスカートをはいている。
(夫・112)
(15) もう一人は少年で、赤いベレー帽にトレンチコートを羽織っている。
(朝日 1999.09.06)
(16) 響子はぱっと帽子をぬいだ。(夫・18)

「着る」「かぶる」「履く」「羽織る」와 같이 <착용>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류는, 동작주의 손으로 자신의 신체에 의복류를 입히는 <재귀성>의 운동형태로 인하여, 동작주는 (옷을 입은 상태)로의 가시적인 상태변화를 입는다. (16)의 「脱ぐ」와 같이 <탈의>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도 <재귀성>의 운동형태로 인하여, 동작주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벗은 상태)로 가시적인 상태변화를 입는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着る」「かぶる」「履く」「羽織る」「脱ぐ」와 같은 동사류를 묶어서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재귀동사」로 분류한다.

3.1.1.2 <신체의 손질>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17) 外資系生保営業職の野口さんの起床は午前四時。温水でシャワーを浴びて目を覚まし... (朝日 1999.01.30)

「浴びる」와 같이 <신체의 손질>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는, 동작주가 샤워기를 잡아서 자신의 신체로 물을 뿌리는 <재귀성>의 운동형태를 취하며, 동작주는 (신체가 물에 젖은 상태)로 가시적인 상태변화를 입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浴びる」와 같은 동사를 <신체의 손질>의 의미를 가지는 「재귀동사」로 분류하며, 이러한 「재귀동사」로 구성된 구문을 <신체의 손질>의 의미를 나타내는 「재귀동사문」으로 분류한다.

3.1.1.3 <일시적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18) 姉が筒を持ち、私がノコギリを動かした。(さ・54)

(19) それからミルクコーヒーのカップを持ち上げて、「あなたのマーブは?」と訊く。(冷・138)

(20) ボタ山から石炭のかすを拾った。(朝日 1999.01.01)

「持つ」「持ち上げる」「拾う」와 같이 <일시적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는, 동작주가 손을 사용하여 어떠한 사물을 집거나, 집어올리는 의미를 나타내는 <재귀성>의 운동형태로 인하여, 동작주는 (사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상태)로 가시적인 상태변화를 입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持つ」「持ち上げる」「拾う」와 같은 동사류를 <일시적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재귀동사」로 분류하며, 이러한 「재귀동사」류로 구성된 구문을 <일시적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재귀동사문」으로 분류한다.

3.1.1.4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21) バイアグラは、硝酸塩系薬剤と一緒にのむと、血圧が急に下がり、死亡することもある。(朝日 1999.02.23)

(22) 私とヒロシは隅のベンチに座って早速モチを食べた。(さ・180)

(23) 女子高校生が制服姿でたばこを吸っています。(朝日 1999.01.15)

「飲む」「食べる」「吸う」등과 같이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의 경우, 동작주가 손으로 어떠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재귀성>의 운동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섭취>의 행위로 인하여 동작주의 가시적인 상태변화를 알 수 없지만, 동작주의 비가시적인 <생리적 변화>를 초래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飲む」「食べる」「吸う」와 같은 동사류를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재귀동사」류로 분류하며, 이러한 「재귀동사」로 구성된 구문을 <섭취>의 의미를 나타내는 「재귀동사문」으로 분류한다.

3.1.1.5 <이탈>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24) 煙草を吸い、まぶしさに眉を寄せながら、青空に煙を吐く。(東・22)

(25) ローナさんは名古屋市に住む日本人の夫と結婚し、初めての子供を産んだ直後だった。(朝日 1999. 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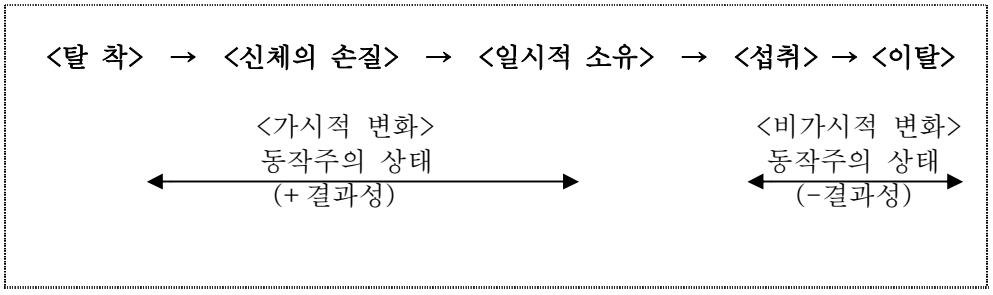
「吐く」「産む」등의 <이탈>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류는 동작주에서 시작된 행위로 인하여 동작주에 귀착하는 운동형태와는 달리, 자신의 소유물을 스스로 <이탈>시키는 운동형태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탈>의 행위는 동작주의 의지적 행동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며, 또한, <탈의>의 행위가 손을 사용하여 <재귀성>의 운동형태를 취한다면, <이탈>의 행위는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는 운동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재귀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ウェスリー・M・ヤコブセン(1989)은 「泳ぐ」「走る」류의 무대자동사와 의도적 행위를 나타내는 모든 자동사는 동작주의 행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결과가 있는 변화를 나타낸다고 지적하며 〈재귀적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탈>의 동사류는 동작주의 의도적 행위를 나타내는 무대자동사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재귀동사」라는 생각이

든다. (24)(25)를 <재귀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24)는 몸 속에 (담배연기가 있던 상태)에서 (담배 연기가 없는 상태)로 비가시적인 <생리적 변화>를 입는다고 볼 수 있으며, (25)의 경우도, 몸 속에 (아기가 있던 상태)에서 (아기가 없는 상태)로 비가시적인 <생리적 변화>를 입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吐く」「産む」와 같은 동사류를 <이탈>의 의미를 나타내는 「재귀동사」로 분류하며, 이러한 「재귀동사」로 구성된 구문을 <이탈>의 의미를 가지는 「재귀동사문」으로 분류한다.

3.1.2 재귀동사문의 단계성

「재귀동사문」의 의미적 분류를 통하여 <탈착><신체의 손질><일시적 소유><섭취><이탈>의 의미 순으로 「재귀동사문」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탈착><신체의 손질><일시적 소유>의 경우는 의도적인 동작주의 행위가 동작주의 신체에 귀착하는 운동으로 인하여 동작주는 가시적인 신체의 상태 변화를 입는다. <섭취>의 행위도 동작주의 <재귀성>의 운동형태를 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가시적인 생리적 변화를 입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탈>의 행위는 동작주의 행위의 시작과 귀착의 관점보다는, 스스로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비가시적인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귀동사문의 단계성-



이와 같이 「재귀동사문」의 <단계성>은 동작주가 <재귀성>의 운동형태로 인하여 동작주가 얼마만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고 있는가에 따른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작주가 입은 변화가 가시적, 비가시적인 관점뿐만이 아닌, 동작이 실현된 결과적 관점에서는 <±결과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결과보다는 동작주의 의도적 행위에 초점을 두는 「泳ぐ」「走る」류의 무대자동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재귀동사」라고 분석된다.

3.1.3 재귀동사의 분류

앞서 「재귀동사문」의 의미적 분류작업을 통해 5가지의 의미로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귀동사」를 의미적 관점에서 분류를 해 보기로 한다.

-재귀동사의 분류-

동작주 <가시적> 상태변화동사			동작주<비가시적>상태변화동사	
<탈착>의 의미	<신체의 손질>의 의미	<일시적 소유>의 의미	<섭취>의 의미	<이탈>의 의미
着る, 着がえる, かぶる, 履く, 羽織る, 脱ぐ	浴びる	持つ,持ちあげる, 拾う	食べる, 飲む 吸う	吐く, 産む

3.2 타동사재귀문에 대하여

「타동사재귀문」이란 일반적인 구문에서는 타동사고유의 역할을 하지만, 동작주의 신체일부분을 나타내는 「を」격 명사구와 결합하여 문이 형성되거나, 동작주의 신체일부분으로 향하는 「に」격 명사구와 결합하여 구문상으로 <재귀성>의 의미특징을 가지게 되는 구문을 「타동사재귀문」이라고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26) 太郎がまどからくびをだした。(高橋:1985)

(27) a 太郎は手袋を自分の手にはめた。((=11))

b 太郎は手袋を次郎の手にはめた。

(26)은 동작주의 신체일부분인 「くび」라는 「を」격 명사구와 결합하여 형성된 「타동사재귀문」이며, (27a)은 동작주의 신체 일부분인 「自分の手」라는 「に」격 명사구에 작용하는 「타동사재귀문」이다. (27a)은 「はめる」라는 타동사가 「自分の手」에 작용하여 <재귀성>의 의미를 가지는 구문도 가능하며, (27b)와 같이 타인에게 작용하는 타동사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2.1 타동사재귀문의 특징과 성립형태

「타동사재귀문」은 타동사가 동작주의 신체일부분을 「を」격 명사구로 취하거나, 신체일부분을 「に」격 명사구로 취하여 <재귀>의 의미를 가지는 구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타동사재귀문」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타동사와 신체일부분 또는, 신체소유물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나타나며, 의미적 특징으로는 「재귀동사문」과 같이 동작주의 상태변화를 초래한다는 특징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특징은 「재귀동사문」과 같이 동작주의 <가시적> 상태변화와 <비가시적> 상태변화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타동사재귀문」의 형태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타동사재귀문의 성립형태-

ⅰ) 동작주의 가시적 상태변화와 비가시적 감정변화를 초래한다.
ⅱ) 타동사문의 형식을 취한다.
ⅲ) 「に」격 신체명사구 + 「を」격 명사구 + 타동사 = <탈착><신체의 손질> <섭취>의 의미
ⅳ) 「を」격 신체소유물의 명사구 + 타동사 = <이탈>의 의미
ⅴ) 「を」격 신체명사구 + 타동사 = <신체의 자세변화><감정의 변화>의 의미

3.2.2 타동사재귀문의 의미적 분류

「타동사재귀문」의 특징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재귀동사문」은 동사 자체의 성질이 <재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타동사재귀문」은 일반적인 타동사가 동작주의 신체일부분 또는, 신체소유물의 명사구를 「を」격 명사구나 「に」격 명사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작용하는 형태의 구문을 말한다. 이러한 구문은 동작주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의미를 가지며, 「재귀동사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하고자 한다.

3.2.2.1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28) 崇は、左手の小指に銀色の指輪をはめている。(冷・96)

(29) 白いコットンセーターとジーンズを身につけて、台所で本を読んでいると…
(冷・15)

(30) 兄は帰宅後に、めがねをはずして鏡を見た。(朝日 1999. 11.14)

(31) 成人男女各二体が一体ずつほぼ完全な形で埋葬されていた。女性二体は、抜歯風習の影響とみられる意図的に歯を抜いた跡があった。(朝日 1999. 09.14)

(28)(29)는 신체일부분의「小指」와, 신체를 나타내는「身」라는 「に」격 명사구와 「はめる」「つける」라는 타동사류와 결합하여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재귀문」이라고 할 수 있다. (30)(31)은 신체소유물「めがね」과, 신체일부분을 나타내는「歯」라는 「を」격 명사구와 「はずす」「ぬく」류의 타동사류와 결합하여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재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동작주가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에 입거나 끼우는 행위의 <재귀성>의 운동형태를 취하며, 동작주는 자신의 신체에 가시적인 상태변화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재귀동사문」의 <탈착>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8)~(31)과 같은 구문을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재귀문」으로 분류한다.

3.2.2.2 <신체의 손질>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32) ちりちりの髪は伸びるとまとまりがつかなくなる。ちょっと伸びるとバリカンで刈る。
(朝日 1999. 11.23)

(33) 一センチぐらい化粧品を塗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朝日 1999.03.04)

(34) 職人が手を洗うための湯をドラム缶で沸かす。(朝日 1999. 03.16)

「刈る」「塗る」「洗う」라는 타동사와 「髪」「手」등의 신체명사구에 작용을 하

는 운동형태의 구문이다. (33)의 경우는 「顔」라는 신체명사구가 생략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신체의 손질>의 의미를 나타내는 행위의 경우도 동작주의 손으로 동작주의 신체일부분인 「髪」「顔」「手」에 영향을 입히는 <재귀성>의 운동형태를 통하여 동작주는 가시적으로 신체의 상태변화를 입는다. 따라서, (32)~(34)와 같은 구문을 <신체의 손질>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재귀문」으로 분류한다.

3.2.2.3 <동작행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35) マーブが腰をおろすと、ベッドは大きくきしんだ。(冷・33)
(36) マーブはほんのすこし首をすくめる。(冷・52)
(37) 私が言うとアルベルトは顔を上げ、微笑んで... (冷・120)

「おろす」「すくめる」「上げる」라는 타동사와 「腰」「首」「顔」라는 신체의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타동사재귀문」과는 달리, 구문상으로는 신체일부분을 나타내는 「を」격 명사구에 작용을 하는 형태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작주의 <동작행위>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村木(1986)는 「再帰動詞として「(肩を)すくめる, (首を)かしげる」を入れているが、これらは帰着点・始発点が動作主自身であるという特徴を持っていない」[10]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동작주가 「손」으로 스스로에게 한 작용이 아닌, 동작주의 신체에서 움직임으로 시작하여 움직임으로 종료하는 운동형태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형태는 무대자동사의 <의도적 행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구문적 관점에서 볼 때 동작주는 신체일부분에 영향을 입히는 <재귀성>의 운동형태라고 볼 수 있다.

[10] 村木(1986)는(肩を)すくめる, (首を)かしげる와 같은 구문은 동작의 시작과 귀착이 동작주 자신이라는 특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村木新次郎(1989) 「ヴォイス」『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第4券(上) 明治書院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구문도 <동작행위>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재귀문」으로 분류한다.

3.2.2.4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38) 私はパンをちぎって口に入れた。(冷・99)

(39) テレビをみながらチャーハンを口に運んでいる橋本に訊いた。(東・9)

「入れる」「運ぶ」라는 타동사와 「口」라는 신체일부분을 「に」격 명사구의 형태를 취하는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작주는 자신의 손으로 입까지 음식물을 가져가는 <재귀성>의 운동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문은 동작의 완결성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적인 관점을 취하나 <섭취>의 행위가 종결된 상태로 간주하였을 경우, 동작주는 비가시적인 변화를 입는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을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재귀문」으로 분류한다.

3.2.2.5 <이탈>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40) きんさんは数日前から食欲がなく十二日朝、「あるけれん(歩けない)」と訴えていた。朝食をもどしたため近くのかかりつけの病院で便を検査したところ、出血がわかり、救急車で病院に運ばれたという。(朝日 1999. 07.13)

「もどす」라는 타동사와 동작주의 신체에 속해있는 「朝食」라는 「を」격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문은 동작주의 행위가 스스로의 소유물을 <이탈>시키는 운동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은 운동형태의 경우도 동작주가 손으로 행한 행위가 아닌 무대자동사의 <의도적 행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탈>의 행위로 인하여 동작주는 비가시적인 생

리적 상태변화를 입는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을 <이탈>의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재귀문」으로 분류한다.

3.2.2.6 <감정의 변화>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41) 私はマーブに腹を立てて言った。(冷・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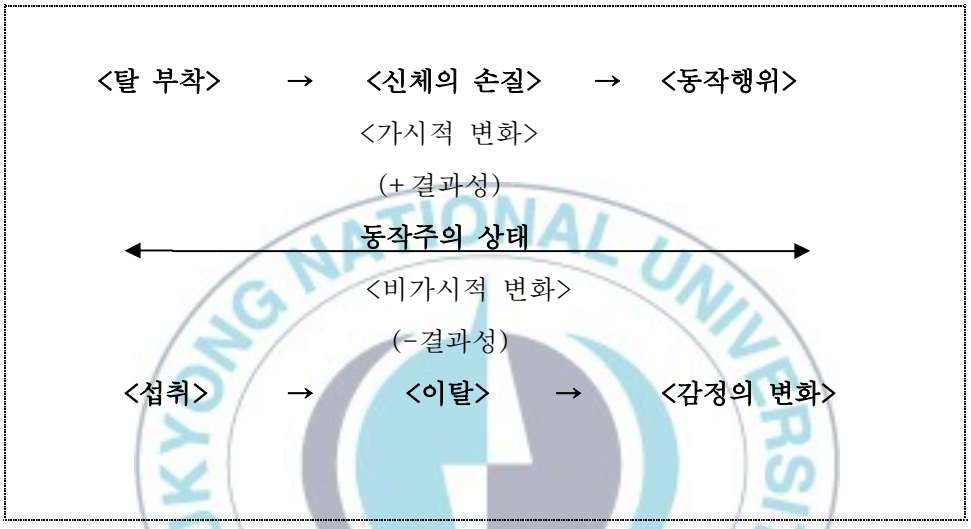
「立てる」라는 타동사와 「腹」라는 신체일부분인 「を」격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장의 경우도 구문상으로는 신체의 명사구인 「腹」에 작용을 하는 <재귀성>의 운동형태를 취하지만, 의미상으로는 「怒る」와 같은 자동사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작주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의 「타동사재귀문」은 자동사에 근접하는 구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을 동작주가 비가시적인 <감정의 변화>의 입는 「타동사재귀문」으로 분류한다.

3.2.3 타동사재귀문의 단계성

「타동사재귀문」은 구문상으로 타동사가 신체일부분을 「に」격 명사구나 신체소유물을 「を」격 명사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재귀성>의 운동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재귀성>의 운동형태로 인하여, 동작주는 자신의 신체에 <가시적><비가시적>인 상태변화를 입는다. 구체적으로, <탈착><신체의 손질><동작행위><섭취><이탈><감정의 변화>라는 6가지로 의미적 분류 할 수 있다. <탈착><신체의 손질><신체의 자세변화>는 동작주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는 가시적인 상태변화를 입으며, 변화는 결과적으로 종결된 상태를 나타낸다. <섭취><이탈><감정의 변화>는 동작주의 행위로 인하여 동작주가 비가시적인 생리적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입으나 동작의 결과성에는 마이너스적인 관점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타동사재귀문」은 동작주의 신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타동사재귀문의 단계성-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Ⅳ. 재귀구문과 상(相)

4.1 선행연구

「재귀동사」와 상(相)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工藤(1982), 仁田(1982)가 있다. 工藤(1982)는 「他の他動詞はみな「テイル」を付けたときに基本的に動きの継続の意味を表すのに、これだけは変化の結果の継続の意味をあらわす」[11]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仁田(1982)는 「再帰動詞(或は再帰用法)の動詞の中には、主体動作であるとともに、主体に対する状態変化でもあるものが存する。こういったものが「テイル」を取れば、「テイル」の意味分析に対する条件からして、「テイル」のアスペクト的意義は、両義性を帯びたものになる」라고 하며 「재귀구문」이 「テイル」의 형태를 취하면, <동작의 지속>과 <변화결과의 지속>이라는 양의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42) 花子ガ着物ヲ着テイル。(仁田:1982)

仁田(1982)는 (42)에 대하여 <동작의 지속>의 경우와 <변화결과의 지속>의 경우가 존재한다고 한다. 옷을 입는 행위에 대하여 진행의 의미와 동작이 완료된 상태로 양의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1] 工藤(1982)는 타동사는 「テイル」의 형태를 취할 경우, <동작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재귀동사의 경우는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工藤真由美(1982) 「シテイル形式の意味記述」『日本学会雑誌』13:4 참조)

(43) 早川氏が髭を剃っている。(天野:1987)

(44) 十分ほどそのままの姿勢で体を伸ばしていた。(待・20)

工藤(1982)와 仁田(1986)는 「타동사재귀문」인 (43)의 「剃る」와 「伸ばす」와 같이 대상에 변화를 주는 동사는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로 우선적으로 해석되지만, 「叩く」「殴る」「打つ」와 같이 대상에 변화를 주지 않는 동사는 <동작의 지속>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鷲尾(1997)는 순간동사에 속하는 「付ける」「傷める」와 같은 「재귀동사」는 <동작의 지속>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동사>와 <순간동사>로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재귀구문」에 사용되는 동사류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工藤(1982)가 아스펙트의 관점에서 분류한 일본어 동사의 분류기준을 통하여 4.2.1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4.2 재귀구문의 상(相)적 의미특징

「재귀구문」이 상(相)을 표현하는 형식소인 「テイル」의 형태를 취할 경우 <동작의 지속>과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 중에서 어느 쪽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해석되는 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귀구문」의 특징은 자동사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45) あのとき順正は泣いていた。(冷・192)

(46) 教室の窓ガラスが割れている。(朝日 1999.01.27)

「泣く」와 「割れる」의 자동사문이 각각 「テイル」의 형태를 취하면 (45)는

<동작의 지속>의 의미로 해석되며, (46)은 <변화결과의 지속>으로 해석된다. 본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무대자동사문의 경우는 <동작의 지속>의 의미를 가지며 유대자동사문의 경우는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동작의 과정에 중점을 두는 동사인지, 결과에 중점을 두는 동사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석 할 수가 있다. 또한, 工藤(1982)의 동사 분류방법을 기준으로 하면 「泣く」는 <주체 동작동사>이며, 「割れる」는 <순간동사>로 분류된다. 따라서, 어느 그룹에 속한 동사인지에 따라 <동작의 지속>과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 중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다.

4.2.1 재귀동사문의 상(相)적 의미특징

工藤(1982)는 동사를 「テイル」와의 관계 속에서 크게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그룹을 「계속동사」로 분류하며, 변화결과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사그룹을 「순간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계속동사」는 <주체의 동작동사>와 <객체 비변화동사>, <객체변화동사>로 분류한다. 工藤(1982)의 분류방법을 토대로 하여 본고에서 분류하고 있는 「재귀동사」는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체의 동작동사	객체 비변화동사	객체 변화동사	순간동사
歩く、走る、飛ぶ、流れる、泳ぐ、回る、泣く、笑う	叩く、振る、食べる、飲む、吸う、吐く	掛ける、外す、入れる、出す、つける、上げる	着る、履く、かぶる、脱ぐ、着がえる

(47) 麻生が帽子をかぶっているのを見て、... (夫・18)

(48) うしろで声がして、ふりむくと母親が立っていた。青いパジャマを着ている。(東・26)

(49) 水のみ場では黒い犬が水を飲んでいた。(冷・94)

(50) 制服を着て、堂々とたばこを吸っている今風の女子高生がいました。
(朝日 1999.02.13)

(47)(48)의 「かぶる」「着る」는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재귀동사」이며, 「순간동사」에 속한다. 따라서, 이에 속하는 「재귀동사」의 문은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해석된다. 반면, (49)(50)의 「飲む」「吸う」는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재귀동사」이며, 「객체 비변화동사」에 속한다. 따라서, 이에 속하는 「재귀동사」의 문은 <동작의 지속>의 의미가 우선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타동사재귀문의 상(相)적 의미특징

「타동사재귀문」은 타동사가 동작주의 신체 및 신체의 일부분에 작용하여 동작주의 상태변화 및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타동사재귀문」에 사용되는 타동사는 工藤(1982)의 동사분류를 토대로 하면 「객체 비변화동사」와 「객체변화동사에」에 속하는 동사로 분류된다. 그러면, 신체일부분을 「を」격 명사구로 취하며 「テイル」의 형식을 취하면 어떠한 의미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예문을 통하여 알아보자.

(51) アンジェラは両手を腰にあて、信じられないという顔で、首を左右に振っていた。
(冷・129)

(52) 人差指に、赤い、大きな指輪をつけている。(東・39)

(51)(52)는 각각 「振る」와 「つける」라는 타동사로 이루어진 「타동사재귀문」이다. 「振る」는 「객체 비 변화동사」에 속하고, 「つける」는 「객체변화동

사」에 속한다. 따라서 신체일부분을 「を」격 명사구로 취하며 「テイル」의 형태를 취할 경우, (51)은 <동작의 지속>의 의미를 가지며 (52)는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재귀구문」의 상(相)적 의미특징은 「テイル」의 형식을 취할 경우, 工藤(1982)의 동사분류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하는 동사인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석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재귀동사」와 「재귀구문」속의 타동사는 「객체변화동사」에 속하는지, 「객체 비변화동사」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동작의 지속>의 의미와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로 분류된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재귀구문의 상(相)적 의미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재귀구문과 상(相)적 의미특징-

(가시적 상태변화)

<탈착> <신체의 손질> <일시적 소유 > <동작행위>

변화결과의 지속

동작의 지속

(비가시적 상태변화)

<섭취> <이탈> <감정의 변화>

이와 같이, 동작주의 상태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가 우선적이며, 비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동작의 지속>의 의미로 우선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재귀구문과 태(態)

5.1 재귀구문과 수동태

5.1.1 선행연구

三上(1953)은 동사를 수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형」이 가능한 동사를 능동사(能動詞), 「수동형」이 불가능한 동사를 소동사(所動詞)로 구분하였다. 능동사(能動詞)중에서 직접수동이 가능한 동사를 타동사(他動詞), 직접수동이 불가능한 능동사(能動詞)를 자동사(自動詞)라고 하였다. 자동사 중에서도 「수동형」이 가능한 경우는 「간접수동」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12]

(53) a 太郎は次郎を殴った。(孫東周:2005) → (타동사문)
b 次郎は太郎に殴られた。(孫東周:2005) → (직접수동문)
(54) a 子供が起きた。(孫東周:2005) → (자동사문)
b 母は子供に起きられた。(孫東周:2005) → (간접수동문)

高橋(1985)는 「재귀태」에 대하여 「自分自身またはその部分に対する動作のばあいのヴォイスを再帰態という」라고 정의하고, 일본어에 있어서 「재귀동사」가 발달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구문론적 카테고리로서의 「재귀구문」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재귀구문」의 경우, 수동문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마이너스적 작용의 의미로써 수동태의 카테고리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2] 孫東周(2005) 『日本語動詞とヴォイス』에서 재인용.

(55) a 太郎が まどから くびを だした。(高橋:1985) → (타동사재귀문)

b *くびが 太郎によって まどから 出された。(高橋:1985) → (직접수동문)

(56) a 花子が あしを くじいた。(高橋:1985) → (타동사 재귀문)

b *あしが 花子によって くじかれた。(高橋:1985) → (직접수동문)

「재귀구문」의 직접수동문이 비문이 되는 원인에 대하여 高橋(1975)는 「재귀구문」은 타동사가 자동사화 되면서 능동태에서 멀어지고 있는 점과 「手をあげる」=「挙手する」, 「ぼうしをぬぐ」=「脱帽する」와 같이 자동사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仁田(1982)는 「재귀동사」가 직접수동문이 성립 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再帰動詞は、まともの受動を形成しうる動詞が必要とする意味的特徴を有していない。必要な意味的特徴を有していないことが、再帰動詞の受動化を不可能にする基因なのである」[13]라고 하며, 「재귀동사」는 타동사가 지니는 「밖으로의 작용」이 없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57) a 太郎は紺の背広を着ていた。(仁田:1982) → (재귀동사문)

b *紺の背広は太郎に着られていた。(仁田:1982) → (직접수동문)

(58) a 毎朝彼はシャワーを浴びる。(仁田:1982) → (재귀동사문)

b *毎朝シャワーは彼によって浴びられる。(仁田:1982) → (직접수동문)

이와 같이 「타동사재귀문」과 「재귀동사문」은 「を」격을 수반하는 점에서는 일반 타동사와 형태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동작주의 작용이 타인이나

[13] 仁田(1982)는 직접수동을 형성하는 동사가 필요로 하는 의미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 점이 재귀동사의 수동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仁田義雄 (1982) 「再帰動詞、再帰用法―Lexico-Syntax の姿勢から―」『日本語教育』 47 참조)

사물로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 향하여 자신이 상태변화를 입는다. 자동사문의 경우도 의미적으로는 「재귀구문」같은 의미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동사와 같은 의미특징은 「재귀구문」의 경우도 직접수동문이 성립되지 못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5.1.2 문제제기

仁田(1982), 高橋(1985), 村木(1986)는 타동사 구문이라도 「재귀성」을 지니는 구문은 직접수동문과 대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天野(1987)는 益岡(1982)의 무생물을 「ガ격」성분으로 하는 수동문이 성립하는 <3가지 동기>[14]에 근거하여 (59b)의 「재귀동사문」과 (60b)의 「타동사재귀문」도 직접수동문이 성립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益岡(1982)의 무생물 주어의 수동문 성립을 위한 3가지 동기>

①ある出来事の結果として物理的影響を被ったという意味を明示すること ②ある属性を有しているという意味を明示すること（以上昇格の動機） ③能動文の主語（動作主）を背景化すること（降格の動機）

(59) a 葉子は爪を真っ赤に塗っていた。(天野:1987) (타동사재귀문)
b (葉子の)爪は真っ赤に塗られていた。(직접수동문)

(60) a 森尾氏の意図したのよりも若い年齢層が、よく彼のデザインした服を着ている。
(天野:1987) (재귀동사문)
b 森尾氏のデザインした服は、彼が意図したのよりも若い年齢層によく着られている。(직접수동문)

[14] 무생물을 「ガ격」성분으로 하는 수동문성립의 <3가지 동기>는 天野(1987)에서 재인용 한 것임.

天野(1987)는「재귀구문」의 직접수동문의 성립에 관하여, (59b)는 능동문의 주어를 배경화 하는 동기③, (60b) 는 속성을 나타내는 동기②에 각각 대응시키며, 益岡(1982)의 무생물 주어의 수동문 성립을 위한 3가지 동기를 만족시켜 성립하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59b)의 직접수동문의 성립에 있어서 직접수동문의 동작주와 능동문의 동작주가「葉子」라는 동일한 인물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진다. 수동문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문이므로, 스스로가 행한 동작이 수동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재귀구문」에 대하여 직접수동문의 성립여부를 가리며, 간접수동문의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립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행할 것이다. 또한, (60a) 의「若い年齢層」라는 불특정다수가 「재귀동사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귀성>의 관점에서 재고해 보기로 한다.

5.1.2.1 동작주 일치와 명기의 필요성

寺村(1982)는 직접수동의 구문에 대하여「直接受身という構文の本質を知るためには、どうしても対応する能動表現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라고 능동표현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또한, 능동문의 타동사가 물리적 심리적 작용을 할 경우, 수동문의 동작주를 명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사로「に」「によって」가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15]

X ガ Y ニ (その他) V-(r)are- (직접수동문) Y ガ X ヲ/ニ V- (능동문)

[15] 寺村秀夫 (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第3章 참조.

(61) a (葉子の)爪は真っ赤に塗られていた。((=59b))

동작주: 葉子　　대상: 花子の爪

b ?(葉子の)爪は**花子に(よって)**真っ赤に塗られていた。

c 葉子は爪を真っ赤に塗っていた。((=59a)) (능동문)

(61b)와 같이 직접수동문의 동작주(능동문의 주체)를 명기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임을 알 수가 있다. (61a)는 마치 타인에 의해서 「葉子」의 손톱이 빨갛게 칠해 진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나 능동문이 되는 경우는 자신이 손톱에 칠하는 「재귀구문」이므로 (61a)의 경우는 동작주를 명기하지 않으면 (61c)의 직접수동문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 예문을 보자.

(63) a 広島県甲山町の塚前達郎さん(79)にはこの半世紀、ずっと心に引っ掛かっている光景がある。警察官だった。1945年8月の原爆投下直後、広島市の原爆ドーム近くにできた仮設の警察官詰め所にいた。辺り一面焼け野原で、道路わきには多数の遺体があった。ふと気づくと、地面をはいながら近づいてくる人影があった。米兵捕虜らしく、片足には足かせのような**金属の輪がはめられていた**。(朝日1999.10.24)

동작주: 日本軍/警察官　　대상: 捕虜の片足

b (米兵捕虜の)片足には**日本軍に(よって)**足かせのような金属の輪がはめられていた。

c 日本軍は米兵捕虜の片足に足かせのような金属の輪をはめていた。(능동문)

(63a)는 「재귀구문」의 직접수동문처럼 보여지나, 기준적 시점의 해석으로는 미군병사의 포로는 자신의 한쪽 발에 스스로 금속의 링을 채웠을 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63b)와 같이 미군포로가 일본군이나 경찰관에 의해서 발목에 금속의 링이 채워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직접수동문은 동작주(능동문의 주체)를 명기하여도 자연스러운 문장임을 알 수가 있다.

(64) a 私が新生児室に行き、手袋をはめられた我が子と対面したのは、生後三日目でした。(朝日1999.11.21)

동작주: 看護婦/医者	대상: 我が子

b 私が新生児室に行き、**看護婦に(よって)**手袋をはめられた我が子と対面したのは、生後三日目でした。

c 看護婦はわが子に手袋をはめた。(능동문)

(64a)는 장갑이 끼워진 상태로 재귀구문의 직접수동문과 같이 보여지나, 신생아가 스스로 장갑을 끼웠다고는 해석되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64b)의 간호사의 행위를 명기하여도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63a)(64a)의 능동문은 「자신으로의 작용」이 아닌 동작주의 의지적 행위로 인한 「밖으로의 작용」의 행위로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능동문의 객체가 주어가 되어 동작주의 영향을 입는 형식의 직접수동문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59a)의 「타동사재귀문」은 자신의 신체일부

분에 영향을 주어 스스로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의미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문은 자신의 신체일부분 주어가 되어서 자신의 동작에 의해 영향을 입은 형태의 직접수동문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1.2.2 불특정 다수가 주어인 경우

天野(1987)는 (60b)와 같이 「재귀동사문」도 직접수동문이 성립하는 예문을 제시한다. (60a)의 경우는 동작주가 「若い年齢層」이며, 「着ている」라는 「재귀동사」로 이루어진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着る」라는 재귀동사는 상(相)적 의미특징에 있어서 <동작의 지속>과 <변화결과의 지속>이라는 양면의 해석이 가능한 동사이나, (60a)의 경우는 <동작의 지속>의 의미는 가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재귀동사문」은 동작주 자신의 상태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60a)과 같이 「若い年齢層」라는 <불특정 다수>가 동작주가 되는 능동문의 경우, 동작주의 상태변화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으므로 「재귀동사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 (65)의 경우도 같은 예라고 볼 수가 있다.

(65) キリンビールは、欧州各地で飲まれているタイプのビール3種類を集めた「キリンヨーロッパ」シリーズの第2弾＝写真＝を3月下旬に発売する。(朝日1999.02.24)

(65)의 문이 능동문이 될 경우, 동작주는 「欧州各地(の人々)」라는 <불특정 다수>임을 알 수가 있다. 「飲む」와 같은 「재귀동사」의 경우도 동작주의 섭취 행위뿐만 아닌 생리적 변화에도 초점을 두는 관점에서 해석할 때 <불특정 다수>가 동작주가 되는 능동문은 「재귀동사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5.1.3 재귀구문의 간접수동문 성립에 대하여

「재귀구문」은 동작주가 스스로에게 작용하여 스스로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동사문과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재귀구문」은 동작주 스스로의 <의지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동사문의 수동문과 「재귀구문」의 수동문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66) a 子供が起きた。(孫東周:2005)(자동사문)

b 母は子供に起きられた。(孫東周:2005)(간접수동문)

孫東周(2005)는 (66b)와 같이 자동사문이 간접수동문의 형태가 성립하는 점에 대하여 「事態が主語の意図の有無とは独立して主語の意志によって事態が成り立つ場合には間接受身文が可能である」[16]라고 설명하며, 자동사문의 간접수동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작주의 <의지적 행위>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67)는 寺村(1982)가 설명하는 간접수동문의 표면구조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68)의 「타동사재귀문」과, (69)의 「재귀동사문」의 수동문형태를 살펴보자.

(67) X ガ Y ニ Z ヲ ～ ラレル (←Y ガ Z ヲ ～ スル)[17]

---

[16] 孫東周(2005)『日本語の動詞とヴォイス』참조.

[17] 寺村(1982)は(67)の構文について「この構文が間接受身と認められる場合、そのZは、「Xの何か」である場合が少なくともふつうだと思うからである。それは、Xの身体部分であるか、肉親・親類・縁者であるか、もちものであるか、占有している空間であるか、要するにXと何らかの縁のあるものであるのがふつうで、その「迷惑」の度合いは、上に述べた順に低くなっていく、いいかえれば「直接的」から「間接的」へと移っていく、といえるだろう。Xにとって全く無縁のものに、Yが働きかける、というときは、間接受身の文は適当ではないだろうと考える」と述べる。

(68) a 子供たちに手を振られて帰途についたが、久々に娘と孫に会って、心温まる思いをした一日であった。(朝日 1999.11.09)

X: 私 Y: 子供たち Z: 手を 振られる
능동문 → Y ガ Z ヲ ～スル

(68) b **子供たちは手を振る。**

(69) a 隣で、たばこを吸われたにもかからわず、非常にすがすがしい気持ちで店を後に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朝日 1999.10.18)

X: 私 Y: 隣の人 Z: たばこを吸う
능동문 → Y ガ Z ヲ ～スル

(69) b **隣の人はたばこを吸う。**

(68)과 (69)와 같은 간접수동문이 능동문의 형태를 취하면, (68b)와 (69b)와 같이 「타동사재귀문」과 「재귀동사문」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동작주의 <의지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결국, 「재귀구문」은 직접수동문의 형태를 취할 수가 없으며, <의지적 행위>에 의한 자동사문과 같이 간접수동문의 형태는 성립한다는 점에서 자동사문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2 재귀구문과 사역태

5.2.1 선행연구

「재귀동사문」과 사역문과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점의 해석이 있다. 이것은 「재귀동사문」에 대응하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역-타동성타동사」의 존재는 단지 자동사와 타동사와 같이 평행하는 관계로 해석을 하여 「재귀동사」가 자동사에 다가가고 있는 현상으로 볼 것인지, 단지, 동작주 스스로에게 작용하는 현상과 타인이나 사물에 작용하는 현상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귀동사문」의 동작주와 <재귀사역문>의 피사역주가 행하는 동작주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의미해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사역-타동성타동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연구자	언급내용
柴谷方良 (1982)	他動詞文で表される典型的なのは、使役者が被使役者に間接作用を与える、いわゆる操作使役である。例えば、「子供に服を着せる」は、使役者が直接服を手にもって子供に着せることである。一方、二つの事象として捉えられる使役状況の典型的なものは、使役者が被使役者に口頭で指示をして物事をさせる指示使役である。使役文「子供に服を着せる」は、普通子供に服を着るよう指示を与え、子供がそれに従って服を着たという状況を表す。
仁田義雄 (1982)	再帰動詞には自らに対応する自動詞は存しない。これは、自動詞がさらに別な自動詞を必要としないのと軌を一つにする。「着ル」に対する「着セル、着サセル」の関係は、自動詞たとえば「立ツ」に対する「立テル、立タセル」の関係のあり方に平行的である。以上のような事は、再帰動詞が、典型的な他動詞とではなく、自動詞と平行的なパラディグマチック関係を獲得して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天野みどり (1987)	「浴びる、かぶる、着る」と「浴びせる、かぶせる、着せる」は、自動詞「はまる、付く」と他動詞「はめる、付ける」との対応に平行しているのではなく、他動詞「はめる、付ける」の二つの用法、つまり、①動作の帰着点が動作主自身である場合と、②動作の帰着点が動作主以外のものの場合の二用法の対応に平行していると考えるべきである。また、残りの再帰動詞「履く、脱ぐ」にはこのような使役―他動性他動詞が無いので、使役の助動詞「(さ)せる」をつけた「履かせる、脱がせる」がこ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

柴谷(1982)는 「子供に服を着せる」의 「사역-타동성타동사문」을 사역문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사역주가 직접 행하는 관점과 구두로 지시하는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仁田(1982)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존재하는 것은 「재귀동사」가 전형적인 타동사가 아니므로 타동성을 가지는 동사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관점은 「재귀동사」가 자동사에 가까워지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天野(1987)는 仁田(1982)의 관점과 다른 입장을 취하며 「재귀동사」와 「사역-타동성타동사」와의 관계는 단지 동작의 귀착점이 동작주인지, 동작주 이외의 것인지에 대한 차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자동사에 가까운 타동사문은 「재귀동사문」이 아닌 「상태변화주체 타동사문」[18]의 형태의 문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18] 「太郎が空襲で家を焼いた」 의 문은 「焼く」라는 타동사를 술어로 하는 문장이면서도 주체인「太郎」에서 객체인「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太郎の家が焼ける＞라는 사태를 일으킨 것은 「太郎」가 아닌, 「空襲」인 것이다. 이 문은 「太郎が空襲で家が焼けた」 의 자동사문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 天野(1987)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을 「상태변화주체 타동사문」 이라고 말한다. (天野みどり(1987) 「状態変化主体の他動詞文」『国文学』 151 참조)

5.2.2 문제제기

앞서 「재귀구문」과 수동문과의 관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수동문의 경우, 능동문(재귀구문)에 있어서 동작주의 행위가 직접수동문의 형태를 취하면 마치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입은 형태의 문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능동문(재귀구문)에서 의 동작주가 스스로 행하는 행위는 제 3자가 등장하는 간접수동문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도 동작주의 행위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재귀동사」는 대응하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존재한다. 柴谷(1982)의 설명대로 「子供に服を着せる」라는 「사역-타동성타동사문」은 사역주가 직접 행하는 동작과 구두로 지시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着る」라는 「재귀동사」는 「着せる」와 「着させる」라는 「사역-타동성타동사」와 사역동사가 대응하기 때문에 의미적 특징차이는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재귀동사문」이 사역문의 형태를 취할 경우, 자동사문의 사역문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예문을 통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5.2.3 사역-타동성타동사에 대하여

「재귀구문」이 자동사문과 일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수동문이 성립되지 않고 <의지적 행위>에 의한 자동사문과 같이 간접수동문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자동사문과 일치하는 부분을 증명해 보았다. 「타동사재귀문」의 경우는 타동사가 동작주의 신체나 신체일부분을 「を격」명사구나 「に격」명사구를 취함으로써, 재귀적 의미를 가지지만, 그 외의 경우는 타동사문 고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재귀동사문」의 경우는

항상 동작주의 작용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입히므로, 동작주자신 이외의 타인이나 사물에 영향을 주는 타동사문의 의미는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0) a 東尾監督は、立ち上がって手を叩いた。(朝日 1999.07.28)

b 東尾監督は、立ち上がって**選手の**手を叩いた。

(71) a 冬なのに、天野の若い妻は、すけすけの寝巻きのようなものを着ている。

(夫・122)

b *冬なのに、天野の若い妻は、**娘に**すけすけの寝巻きのようなものを着ている。

(70a)는 「타동사재귀문」이며, (70b)와 같이 타인에게 작용하는 타동사문이 성립한다. (71)은 「재귀동사문」이며, (71b)는 「着る」라는 「재귀동사」는 「娘に」라는 「ニ격」명사구를 넣어도 「입히다」 라는 타동의 의미의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仁田(1982)는 「浴びる、かぶる、着る」와 같은 「재귀동사」는 대응하는 자동사는 없지만, 「浴びせる、かぶせる、着せる」와 같이 <사역-타동성타동사>의 존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9]

(72) 母親(29歳)と内縁関係にある男(35歳)は、長男(7歳)が言うことをきかないことに怒り、全身を手や靴べらなどで殴ったうえ、ライターの火を手甲部に押しつけ熱湯を浴びせるなどして全治不詳のけがを負わせた。 (朝日 1999.12.16)

(73) 京子さんが消化しようと布団をかぶせたところ、燃え広がったという。

(朝日 1999.12.27)

(74) 母は「サイズが合わないといけないから、さっそくきせてみよう」 といい、TVをみ

[19] 仁田義雄 (1982) 「再帰動詞、再帰用法―Lexico-Syntax の姿勢から―」『日本語教育』47 참조.

ている息子とヒロシを呼んできて、息子に服を着せた。（さ・74）

(72)(73)(74) 는 각각 「浴びせる、かぶせる、着せる」를 사용한 예문이다. 이와 같이, 「재귀동사」는 스스로에게는 작용하지만 타인이나 사물에게 작용을 할 수가 없으므로, <사역-타동성타동사>와 같은 대응하는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사	타동사	사역-타동성타동사	사역동사
たつ	立てる	——	立たせる
——	浴びる(재귀동사)	**浴びせる**	浴びさせる
かぶさる	かぶる (재귀동사)	**かぶせる**	かぶらせる
——	着る (재귀동사)	**着せる**	着させる
——	脱ぐ (재귀동사)	——	脱がせる

이와 같이, 「재귀동사」와 「사역-타동성타동사」의 관계는 자동사 「たつ」와 타동사 「たてる」가 대응하는 것과 같으며, 「재귀동사」가 타동성을 지니지 못하는 부분을 「사역-타동성타동사」가 그 의미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귀동사」가 대응하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응하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역태가 어떠한 의미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5.2.6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5.2.4 자동사문의 사역태

寺村(1982)는 사역표현의 구문, 의미적 특징, 술어동사가 사역태로 불리

기 위한 형태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75) Wガ X{ヲ/ニ} (Yニ…) V-{ase/sase}-ru (短縮形 V-{as/sas}-u)[20]

(75)의 의미에 대하여 「「Xが (Yに/を…) Vする」事態を、Wが惹き起こす、あるいはそれを妨げ得るのに妨げない、あるいはその発生に主観的に責任があると感じている」라고 설명한다. 즉, 능동문의 사태를 사역주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青木(1977)는 「使役は、しむけられた他者即ち「させられ手＝動作のなし手」の意志と、しむける者即ち「させ手」の意志との関係で成り立つといえる」[21]라고 하며 사역표현에 있어서 사역주와 피사역주와의 관계에 의하여 의미적 특징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青木(1977)는 자동사의 사역문을 유대자동사의 사역문과 무대자동사의 사역문으로 나누어 사역주와 피사역주의 의지관계에 따라서 의미적 특징이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76) a 遊びたがる子供を風呂に入らせる。(青木:1977) (유대자동사 사역문 / 강제의 의미)
(77) a 早く帰らせてやる。(青木:1977) (유대자동사 사역문 / 허가의 의미)
(78) a 苦難に堪えさせる。(青木:1977) (무대자동사 사역문 / 강제의 의미)
(79) a 部外者にも参加させる。(青木:1977) (무대자동사 사역문 / 허가의 의미)

(76a)과 (77a)와 같이 사역주의 의지가 피사역주의 의지에 반해 강한 경우 강제의 의미로 해석이 되며, (78a)과 (79a)의 경우는 사역주의 의지가 피사역주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수가

[20] 寺村秀夫 (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Ⅰ』第3章 참조.
[21] 青木伶子 (1977)「使役―自動詞・他動詞との関わりについて―」『成蹊国文』10 참조.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사문이 사역문의 형태를 취하면 사역주의 지시에 의해 피사역주는 강제의 의미 또는 허가의 의미로, 자동사문의 동작주가 스스로의 동작을 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76) b 子供が風呂に入る。
(77) b 早く帰る。
(78) b 苦難に堪える。
(79) b 部外者が参加する。

(76b)의 자동사 「入る」는 「入る—入れる—入らせる」의 형식으로, (77b)의 「帰る」는 「帰る—帰す—帰らせる」와 같이 「자동사—타동사—사역동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재귀동사」의 「着る」가 「着る—着せる—着させる」와 같이 「재귀동사—사역-타동성타동사—사역동사」 와 같은 맥락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유대자동사의 경우는 타동성이 없으므로 대응하는 타동사가 존재하며, 타동사가 타인이나 사물에 영향을 입힌 후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유대자동사의 사역태는 사역주의 지시에 의한 피사역주의 <의지적 행위>가 내포된 직접적인 동작으로 행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타동사재귀문」의 사역태와 어떠한 공통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5.2.5 타동사재귀문의 사역태

(80) 川で顔を洗わせてみる。その時、汚いから顔が洗えないようなら、どうすればきれいになるのかと考えるでしょう。そこで自然の川を思う心が育つ。木や山への意識が深まる。自然のなかで少し危ないこともしてみればいい。それを超えて安全が

わかる。すぐに結果がでなくても、人を傷つけるような子供たちがでないように変えていきたい。（朝日　1999.02.08）

（81）徳島県警では健康診断で約四人に一人が「肥満に」。驚いた県警本部は昨夏、百二十人に三カ月間、歩数計を付けさせた。（朝日　1999.02.22）

(80)은 누군가의 <의도성>에 의하여 「子供」에게 얼굴을 씻도록 지시를 하여, 「子供は顔を洗う」라는 자신의 <의지적 행위>를 통하여 얼굴을 씻는 「타동사재귀문」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81)의 경우도 「徳島県警」의 <의도성>에 의하여 「県の人たち」에게 歩数計를 차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県の人たち百二十人は歩数計を付けた」라는 「타동사재귀문」이 된다. 이와 같이, (80)(81)의 「타동사재귀문」의 사역태는 피사역주보다 사역주의 <의도성>이 강한 <강제적 의미>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타동사재귀문」의 경우는 동작주의 <의지적 행위>에 의해 성립되며, <의지적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자동사문과 의미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동사재귀문」이 사역태를 취할 경우, (76)와 같이 <강제적 의미>를 가지는 자동사문의 사역태와 공통된 의미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6 재귀동사문의 사역태

앞서 「재귀동사」는 대응하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존재하며 예문을 통하여 <타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사역-타동성타동사문」과 「재귀동사」의 사역문은 어떠한 의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예문을 통하여 알아 보자.

（82）おばあちゃん、歩けるようになっていて。『着物着てみよう』って、わたしが姑に着

せたんです。（朝日　1999.03.11）

（83）襟の分厚い柔道着が七日から東京・講道館で始まった日本男子の強化合宿に届けられた。握る部分が通常の約二倍もあり、つかみにくい厄介な代物。九州を中心に普及し始め、世界選手権でも流行する見込みという。このため、練習相手に着させ、握りにくい感触に慣れておくのが狙い。（朝日　1999.09.09）

(82)는 「사역-타동성타동사문」으로 문장의 의미상으로 볼 때 「姑」가 직접「着物」를 입은 것이 아닌, 「わたし」가 「姑」에게 「着物」를 입히는 <타동>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반하여 (83)의 「재귀동사문」의 사역태의 경우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練習相手」에게 「襟の分厚い柔道着」을 입도록 시키는 <사역>의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사역-타동성타동사」는 「재귀동사」가 <타동>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응하는 「사역-타동성타동사」의 유무에 따라서, 「유대재귀동사」와 「무대재귀동사」로 나누어 <사역>과 <타동>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앞서 설명대로 「유대재귀동사」[22]의 사역태는 <사역>의 의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는 사역과 타동의 의미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문을 통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84）　護符をヤギのようにひろみに食べさせた。(朝日　1999.04.23)

（85）食事は、野生の牛の肉入りスープに、小麦粉のめんを入れた現地料理。武装勢力側は日本人の健康を気遣い、自分たちより先に食べさせた。

（朝日　1999.10.20）

[22] 본고에서는 대응하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있는 「재귀동사」를 「유대재귀동사」로 칭하며, 대응하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없는 「재귀동사」를 「무대재귀동사」로 칭하기로 한다.

(84)(85)는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食べる」라는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이다. (84)은 누군가가 「ひろみ」에게 「護符」을 먹이는 <타동>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85)은 「武装勢力側」가 「日本人」에게 「食事」을 먼저 먹도록 지시를 하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는 <타동>과 <사역>의 양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6) 喫煙する権利認めるが、他人に煙を吸わせる権利は誰にもない。 (朝日 1999. 10.07)

(87) 夫には好きなたばこを吸わせて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朝日 1999. 04.23)

(86)(87)은 「吸う」라는 「재귀동사」로 「食べる」와 같은 <섭취>의 의미를 가진다. (86)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타동>의 의미의 문장으로 볼 수 있으며, (87)은 부인이 「夫」에게 「好きなたばこ」을 피우도록 하려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食べる」와 「吸う」류와 같이 <섭취>의 의미를 가지는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는 <타동>과 <사역>의 양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88) 精神科病棟で奇声をあげながら暴れていたことは信じられなかった。裸足でトイレに向かおうとしたので、追いかけて靴をはかせた。(朝日 1999.10.05)

(89) 園児の屋外でも裸足で遊ばせているが、二日からは靴をはかせるという。 (朝日 1999. 10.02)

(88)은 누군가가 정신병자에게 신을 신기는 <타동>의 의미로 해석되는 반면, (89)는 「幼稚園」에서「園児」에게 「靴」을 신도록 하는 <사역>의 의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대재귀동사」의 경우에는 사역태가 <타동>과 <사역>의 의미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가 사역의 의미보다는 주로 <타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타동>의 의미보다는 주로 <사역>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역-타동성타동사」가 <타동>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나 신체 일부분를 「に격」명사구로 취함으로써, <재귀성>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문을 살펴 보기로 하자.

5.2.6.1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가 <타동>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가 〈타동〉과 〈사역〉의 의미로 항상 양의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재귀동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 사역태로 교체할 경우, <사역>의 의미보다 우선적으로 <타동>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재귀동사」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90) 暴れるハマ子さんをなだめながら服を脱がせた。(朝日 1999.01.28)
(91) 入浴を嫌がり、衣服を脱がせようとすると、助けてと叫び声を上げ、つめを立てたりかみついたり。(朝日 1999. 10.31)

(90)(91)은 〈탈착〉의 의미를 가지는 「脱ぐ」와 같은 「재귀동사문」의 사역태이다. 이 두 문장은 모두 옷을 벗도록 지시하는 <사역>의 의미보다, 주로 〈타동〉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5.2.6.2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가 <사역>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5.2.6.1에서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가 <타동>의 의미가 많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타동>의 의미보다 주로 <사역>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재귀동사」에 대하여 살펴보자. 다음 예문을 보자.

(92) 何でそんな汚いものを生徒に拾わせるのか、という声も父母からもあった。
(朝日 1999. 04.19)

(93) 電子式の防犯ベールも発売されているが、「多くの子供に持たせたい」と一個二百円笛にした。(朝日 1999. 02.10)

(94) 同じ誤飲でも、飲んだものによっては吐かせたほうがいいこともあるし、別の方法をとるべきときもある。(朝日 1999.04.12)

(95) 権力者たちが受精卵のうちに分割し予備として凍結保存し、代理母に産ませたのだ。(朝日 1999.02.12)

(92)(93)은 <일시적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拾う」「もつ」등의 「재귀동사문」과 (94)(95)는 <이탈>의 의미를 가지는 「吐く」「産む」등의 「재귀동사문」의 사역태는 <타동>의 의미보다는 주로 <사역>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5.2.6.3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재귀성>을 가지는 경우

5.2.6에서 「사역-타동성타동사」는 <타동>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타동>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 또는, 신체일부분을 「に격」명사구로 취하며, <재귀성>의 의미를 가지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96) この春、奥歯にかぶせていた金属が取れ、歯科医院に行った。

(朝日 1999.07.05)

(97) どこかで荒唐無稽なお伽話と考えていた自分に、充子は自分で冷水を浴びせた。ふるる、と身震いして問い返した。(朝日 1999. 04.02)

(96)은 동작주의 신체일부분인 「奥歯」를 「に격」명사구로 취하며, (97)은 「自分の体」라는 「に격」명사구가 생략된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타동>의 의미를 가지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재귀성>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高橋(1985)는 「足をぶらぶらさせる」 와 같은 사역태를 <재귀태>라고 설명하며, <재귀태>는 <사역>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96)(97)와 같은 「사역-타동성타동사」의 구문도 동작주로 작용하는 <재귀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96)의 경우는 이전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행위를 마치 스스로 「金属」을 덮어씌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97)의 경우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에게 책임의식을 느끼며 마치 타인에게 작용하는 듯 스스로에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사역-타동성타동사」는 타인이나 사물에게 작용하는 것 이외에도 스스로에게 작용하여 <재귀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5.2.7 재귀동사문의 태(態)적 의미특징

이와 같이, 「재귀동사」는 타동성이 없기 때문에 <타동>의 의미를 가지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재귀동사」가 대응하는 「사역-타동성타동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대재귀동사」와 「무대재귀동사」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대재귀동

사」의 구문은 「사역-타동성타동사」가 <타동>의 역할을 하고 사역태가 <사역>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무대재귀동사」의 사역태는 <타동>과 <사역>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대재귀동사」의 의미특징에 따라서 <타동>과 <사역>의 의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석되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신체나 신체일부분에 「재귀동사」의 사역태를 사용하여 마치 타인에게 작용하는 형식의 <재귀성>을 가지는 구문도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이, 「재귀동사」는 <타동>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사역-타동성타동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은 유대자동사의 형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재귀동사」는 기본적으로 <타동>의 의미가 없다는 점이 자동사와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Ⅵ. 나오기

지금까지 일본어 동사의 <재귀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 보았다. 일본어동사의 <재귀성>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새로운 정의에 대한 「재귀동사」의 새로운 의미적 분류와 「재귀구문」의 의미적 분류도 행하였다. 「재귀구문」은 동작주의 상태변화를 초래하는 의미특징이 있다. 그러한 동작주의 상태변화는 가시적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며, 비가시적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동작주의 상태변화를 기준으로 <재귀성>의 단계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동사재귀문」의 <동작행위>와 <이탈>의 의미는 구문상으로는 타동사의 형태를 취하나 의미상으로는 동작주의 동작에 초점을 두는 자동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에서 「재귀구문」은 동작주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 동작행위로 나타나는 <단계성>은 「재귀동사」가 타동사에 가까운 의미에서 자동사에 가까운 의미로 단계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귀구문」을 상(相)의 형태소 중 하나인 「テイル」와 접목하는 경우 <동작의 지속>의 의미와 <변화결과의 지속>의 의미로 양의성을 가진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工藤(1982)의 동사분류를 토대로 「객체비변화동사」 와 「객체변화 동사」, 「순간동사」로 구분을 하여 해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귀구문」에 사용된 동사류가 속하는 그룹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석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귀구문」과 태(態)적 의미특징에 대하여 수동태와 사역태로 나누어 자동사문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수동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사문은 직접수동이 성립하지 않고 간접수동문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재귀구문」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자동사가 간접수동문이 성립하는 것과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의미적으로 자동사문과 일치하

고 있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재귀구문」과 사역태에서는,「타동사재귀문」의 경우, 자동사와 같은 의미특징을 가지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재귀동사」는 대응하는「사역-타동성타동사」의 유무에 따라「유대재귀동사」와「무대재귀동사」로 구분하여 그 의미특징을 분석하였다.「사역-타동성타동사」의 존재는 유대자동사의 형태와 같은 맥락의 특징이 있다는 것과, 자동사에 가깝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재귀구문」의 특징을 통하여「재귀동사」는 타동사와 자동사의 선상에서 하나의 독립된 카테고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참고문헌

青木伶子 著 (1977)「使役―自動詞・他動詞との関わりにおいて―」『 動詞の自他 』ひつじ書房

天野みどり (1987)「日本語における＜再帰性＞について―構文論的概念としての有効性の再検討―」『日本語と日本文学』 7 筑波大学国語国文学会

ウェスリー・M・ヤコブセン (1989)「他動性とプロトタイプ論」『日本語学の新展開』くろしお出版

Wesley M. Jacobsen (1991)『The Transitive Structure of Events in Japanese』Kurosio Publishers

影山太郎 (1996)『動詞意味論』くろしお出版

工藤真由美 (1982)「シテイル形式の意味記述」『日文学会雑誌』 13:4 武蔵大学人文学会

――――(1995)『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クスト: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ひつじ書房

鈴木重幸 外 (1983)『日本語文法・連語論』むぎ書房

須賀一好・早津恵美子(1995)『動詞の自他』ひつじ書房

孫 東周 (1994)「ヲ格文과他動性」『日語教育』제10집

―――― (1999)「無対他動詞とヴォイス」『日本語文学』 일본어문학회

―――― (2002)「동사에 따른 동작주와 대상과의 관계-무대타동사를 중심으로」『동북아문화연구』 제2집

―――― (2005)『日本語動詞とヴォイス』제이앤씨

高橋太郎 (1975)「文中にあらわれる所属関係の種々相」『国文学』 103

―――― (1985)「現代日本語のヴォイスについて」『日本語学』 4:4

角田太作 (1991)『世界の言語と日本語』くろしお

寺村秀夫 (1982)『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1』くろしお
仁田義雄 (1982)「再帰動詞、再帰用法 ―Lexico-Syntaxの姿勢から―」『日本語教育』47 日本語教育学会
益岡新次郎・田窪行則 (1989)『基礎日本語文法』くろしお
三上章 (1953)『現代語法序説―シンタクスの試み―』 刀江書院
――――― (1963)『日本語の構文』くろしお出版
村木新次郎 (1986)「ヴォイスの輪郭」『国文学 解釈と鑑賞』 51:1
――――― (1989)「ヴォイス」『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 第4券(上) 明治書院
鷲尾龍一・三原健一 (1997)『ヴォイスとアスペクト』 研究社出版

용례출전

夫 : 曽野綾子 (1994) 『夫婦の情況』 다락원
待 : 阿刀田高 (1999) 『待っている男』 다락원
朝日: 朝日新聞 (1999)
冷 : 江国香織 (1999)『冷静と情熱のあいだ』 角川文庫
東 : ――――― (2001)『東京タワー』新潮文庫
生 : 稲盛和夫 (2006) 『生き方』 サンマーク出版
さ : さくらももこ (2008) 『さくら日和』 集英社